

# 바울의 칭의교리에 담긴 ‘자신학화’적 함의

김홍주 목사(온누리 2000 선교본부장)

지난 2차 자신학화 포럼에서 정갑신 목사는 ‘김교신과 자신학’을 논하며 자신학적 논의를 위해서는 ‘믿음의 존재적 차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그리고 자신학이 가능하려면 “절대 진리에 대한 순전한 열망과 발견, 그리고 진리의 사회 문화적 표현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사랑하는 동시에 상대화시킬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sup>1</sup> 필자는 이러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신칭의”교리안에서 존재적 변화를 경험했고, 그 진리를 중심으로 자신이 속했던 문화를 비판적으로 상대화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끌어안고자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사도 바울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대담한 행보를 떠올리게 되었다. 특별히 필자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인간의 문화에 구속가능성을 부여하는 것 만큼이나 이신칭의 교리에 나타난 초문화적 성격이 복음에 번역가능성(translatability)이라는 중요한 특징을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필자는 이 글에서 바울의 칭의론이 갖는 자신학적 함의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먼저 필자의 학문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능력으로는 지난 반세기이상 복잡하게 전개되어 온 1세기 유대교와 바울의 율법관, 그리고 칭의론 논쟁을 다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필자는 교회역사에서 칭의론이 각 시대의 문화와 종교적 틀에서 복음을 분리해내는데 어떤 기여를 했고,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자신학화라는 주제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만 간략히 다루어 보고자 한다.

---

<sup>1</sup> 정갑신, “김교신과 자신학”, 『자신학화』 (GMF Press, 2021), 113

## 1. 이신칭의 논쟁의 배경

이신칭의 교리가 바울의 선교적 상황속에서 제기되고 다듬어진 교리였다는 사실은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sup>2</sup>. 예수님의 제자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한 후 그가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즉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적 확신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초기 교회공동체는 자신들을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의 새언약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겼기에 유대인들을 일깨워야 할 필요성은 강하게 느꼈을지 언정 기존 유대교와 자신들을 구분해야 할 필요는 전혀 느끼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랬기에 성전중심의 제사나 의식들에 계속 참여했고, 율법에서 규정한 정결법과 안식일, 할례 등의 전통을 지키는데 전혀 갈등이 없었던 것이다.

논쟁은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에 이방인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유대교 전통을 따르자면 이방인 회심자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모든 율법을 준수하는 개종의 절차를 밟아야 했다<sup>3</sup>.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의 이러한 요구를 단호하게 반대한다(행15:1,2). 이들이 볼 때 이 문제는 복음의 본질과 관련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한다(갈

---

<sup>2</sup> 그러나 필자는 이신칭의 교리가 바울신학의 중심이 아니라, 그저 이방인선교 상황에서 개발된 전통교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브레데(Wrede)의 주장에 동의하진 않는다. 바울에게 이 진리의 발견은 훨씬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존재론적 차원의 발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터 스텐달(Krister Stendahl)이 그의 소논문 “The Apostle Paul and the Introspective Conscience of the West”에서 제기한 질문은 정당하다. 바울이 이신칭의 교리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질문은 “우리 각 개인이 인간에게 공통적인 죄책과 곤경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서구문화에 익숙한 자기성찰적 양심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메시아가 도래했는데 이 사실이 기존의 율법에 대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안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메시아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선교적인 상황에서 제기된 질문이었다는 것이다.

<sup>3</sup> 신약성서를 살펴보면 유대인 사회속에도 이방인 개종자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개종자라는 용어는 헬라어로 *proselutos*인데 신약성서에서는 4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어떤 구절도 예수님의 제자를 가리키는 용어로는 사용되지 않고, 단순히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나타내는 용어로만 사용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마23:15; 행2:10; 행6:5; 행13:43). 1세기 유대교 회당에 출입하는 이방인 그룹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한다. 첫번째 그룹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과 똑같이 율법의 모든 조항을 지킬 의무가 있는 개종자 그룹(*proselyte*) 이었고, 다른 그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God-fearer*) 그룹이었다. 이들은 할례와 율법의 의식법 등을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회당예배에 참여하도록 허락된 이방인들이었다. 이들은 유대교의 오랜 전통에 감동을 받기는 했지만 자기 가족들과의 관계, 직업을 중심으로 한 관계, 그리고 다른 여러 사회적인 관계들을 포기하길 원하지 않았다. 이들은 단순히 회당의 준회원에 머물러 있었지만 좋은 가문 출신들이 많았고 회당에 상당한 재산을 기부하고 있었다고 한다(홍인규, 2010, 443-444)

1:9) 4. 그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타협할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바울을 반대하는 편에서도 할례와 율법준수를 포기한다는 것은 그저 유대교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본질 자체를 포기하는 일로 여겨졌을 것이다.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요, 율법은 그 언약공동체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문제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 회의에서 교회지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몇 가지 필수적인 사항 외에는 율법준수의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일단락되는 듯했다<sup>5</sup>.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예에서 보듯 이 논쟁은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내내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문제가 되었다.

그렇다면 바울과 그의 일행은 무슨 근거로 할례와 율법을 폐기하는 그런 과격한 주장을 전개했을까? 선교적인 측면에서 복음이 이방 우상들과 미신, 도덕적 타락과 인본주의적 철학이 가득했던 그리스-로마 문명속으로 전파될 때 유대교의 단단한 형식안에 보존되어 전파되면 오히려 혼합주의와 복음의 변질로부터 진리의 내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바울은 복음에게서 유대종교와 문화라는 두꺼운 껍질을 벗겨내는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모험의 길을 택한다.

## 2.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갈1:12).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에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세윤 교수는 자신의 저서 『바울복음의 기원』에서 바울의 다메섹 체험이 바울신학의 기원임을 주장했다. 교회의 핍박자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의 기독교적 인식

---

4 그러나 바울이 유대인들이 유대 정결법이나 음식법,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의 자신화 논의에 중요하다(행16:3; 행21:20-26; 고전9:20). 그가 유대문화 자체를 혐오하거나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5 앤드류 웰스는 자신의 글 “초대 교회에서 배우는 21세기 교회 모델” 『기독교의 미래』 (칭림, 2007) 114-119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 논쟁이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한다. 즉 기독교가 개종자 모델을 포기하고 회심자 모델을 선택함으로써 오늘날 기독교가 성립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개종은 하나의 신앙체계와 생활 관습을 포기하고 다른 민족의 신앙체계와 관습으로 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회심은 방향의 전환 즉 예수 그리스도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즉 회심은 자신의 과거와의 일관성 및 연속성이 부정되지 않는 것이다.

뿐 아니라 기존의 율법, 구원관, 언약관에 있어서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다<sup>6</sup>. 김세운 교수는 고린도후서 4:4의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골로새서 1:15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묘사하는 바울의 독특한 하나님의 형상-기독론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이 바울의 형상-기독론에서 바울의 아담-기독론과 지혜-기독론이 발전되었다고 주장한다. 김 세운 교수는 이러한 결론에서 더 나아가 다메섹 도상의 사건이 바울의 칭의론에 대해서 갖는 구원론적 의의도 발전시킨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첫째 아담이 상실한 신의 형상과 영광을 회복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지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입어 “새사람”이 되었다는 바울 신학이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바울의 기독론에서 칭의론과 구원론이 어떻게 기원하였는가를 밝혀주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다메섹 도상의 체험은 바울의 율법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 것이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sup>7</sup> 그런데 이러한 열심이 오히려 예수공동체를 핍박하고 파괴하도록 만들었다(갈1:13-14). 그렇다면 율법은 유대인들을 의롭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다수의 유대인들도 참 이스라엘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롬2:28-29). “또한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롬9:6-7).

이러한 본문은 바울에게 더 이상 율법이나 유대인으로서의 외적인 표징이 칭의의 도구가 될 수 없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이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으로 의로운 자, 참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태도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바울에게 이것은 혁명적인 인식의 변화요, 깨달음이다.

<sup>6</sup> 물론 제임스 던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김세운 교수가 바울의 복음과 사도직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완성된 것처럼 과장한다고 비판한다. 최종상 박사는 바울 복음이 다메섹의 그리스도 현현에 그 실체의 기원을 둔 것은 맞지만, 그 복음이 선포된 정황과 그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자기인식을 통해 시간을 두고 형성되어 갔다고 설명한다.

<sup>7</sup> 바울이 가졌던 이스라엘의 특권적 지위와 배타적 특권에 대한 열심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는지는 제임스 던, 『바울신학』 박 문재 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492-496 를 참조하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갈2:16)

결국 칭의 논쟁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바울의 새로운 깨달음과 인식의 변화가 놓여있다. 바울에게 칭의론은 한편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의 참 성격을 재정의하는 수단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 유대인들이 지닌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피상적 이해를 격파하는 논쟁의 수단이 된다<sup>8</sup>. 바울은 율법아래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육신적 후손들 대다수가 본래부터 참 이스라엘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롬9:6-8, 2:28-29, 11:1-2). 할레나 혈통을 의지하고 율법을 문자 수준에서 붙들면서 실상은 율법을 말하는 그들 대다수는 “표면적 유대인”(롬2:28-29), “육체를 따라 난 자들”(갈4:23, 29), “종의 자녀들”(갈4:23, 30), “죄 아래”(롬3:9)있는 자들, 따라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결국 이방인들과 방불한 세상적 존재의 일부일 뿐이다. 그렇다면 칭의론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논쟁적 무기인 셈이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과 성령의 표지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갈3:2; 갈3:5).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지극히 선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 인간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 오직 믿음과 성령만이 인간의 인식과 죄에 대한 무능력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령에 의해 정의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칭의론이 지닌 핵심이다. 바울은 이러한 이신칭의에 대한 확신으로 과감하게 유대문화의 옷을 벗은 복음을 헬라 세계에 소개하는 선교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 3. 칭의론과 타문화선교의 방향

---

<sup>8</sup> 이한수, 『복음과 율법』 (생명의 말씀사, 2008), 156-159

그리스도의 전 우주적 주권을 강조하는 초대교회의 기독교론은 교회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공동체로 이끌 수밖에 없었다. 반면 오직 은혜/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칭의론은 이후 이방인선교가 유대교의 종교/문화적 틀을 그대로 타문화권에 이식하는 형태의 선교가 아닌 번역적이고 성육신적인 선교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sup>9</sup>.

바울의 칭의론이 선교에 대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복음의 초문화적인 성격을 설명해 주었다는 점이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의 변화, 즉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의 본성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기쁜 소식이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질병, 곧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육체의 죄악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다. 따라서 초문화적이고, 초인종적이다. 문화와 인종에 상관없이,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 굳이 유대교로 개종(proselytism)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에 유대문화에 대해 자유할 수 있었다. 그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사가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깨달았기에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엡3:6).

이제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문화적인 정체성을 바꿀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방인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고, 유대인은 이방인이 될 필요가 없다. 사실 이는 모든 문화에 대한 긍정이면서, 동시에 부정이다. 율법은 선하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세상에 있는 문화들은 모두 죄에 오염되어 구속을 필요로 하기에 어떤 문화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다. 모든 개인처럼 문화 역시 반드시 복음으로 거듭나야 한다. 복음이 한 문화속으로 번역되어 들어가면, 그 문화는 반드시 복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기에 주변문화를 변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세상의 문화를 절대적

---

<sup>9</sup> 라민산네는 이슬람교를 이식에 의한 선교의 전형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선교는 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미 결정되고 실증된 환경으로의 동화를 시도한다. 반면에 번역에 의한 선교는 의식적인 자기 비판적 성찰을 통해 나오는 자기 확신에 기초한다고 말한다. Lamin Sanneh, *Translating The Message*(Orbis Books:2009), 35

으로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다. 모든 문화는 수용과 거부,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거쳐 거듭나야 할 대상일 뿐이다.

#### 4. 루터의 칭의론 재발견과 교회의 영적민주화

기독교 역사에서 이신칭의(Justification by faith) 교리는 당시 문화에 강하게 결속되어 있던 교회를 새롭게 변혁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왔다. 사도 바울이 이 교리를 통해 유대교에 강하게 결속되어 있던 복음을 그 문화에서 분리해내는 데 성공했다면 루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재발견을 통해 라틴 문화에 강하게 결속되어 있던 복음을 그 문화에서 분리해냈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종교개혁은 바울서신에 대한 재발견으로 시작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은 칭의교리를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항목’으로 선포했다.<sup>10</sup>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마틴 루터이다. 루터에게 중요했던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였다.<sup>11</sup> 루터 이전의 사람들은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오로지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1516년을 전후하여 루터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매우 급진적이고도 새로운 통찰이 일어나게 된다. 그는 이 의가 전가되는 의, 인간 밖에서 대가없이 거저 공급되는 의이고 이것을 얻게 되는 조건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sup>12</sup>

하나님과의 사귀를 갖는데 마리아나 성인, 혹은 교회나 성직자들과 같은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누구나 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하나님과의 사귀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은 교황과 교회 중심의 중세시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만큼 혁명적인 주장이었다. 우선 교황이나 성직자

<sup>10</sup> 엘리스터 맥스레스, 『하나님의 칭의론』 (한성진 역, CLC, 2008), 8.

<sup>11</sup> 엘리스터 맥스레스,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 (박규태 역, 국제제자훈련원, 2009), 76

<sup>12</sup> 본 글에서는 과연 마틴 루터가 바울의 칭의론을 초대교회의 정황에 맞게 정확하게 이해한 것인가하는 물음에 대한 답은 논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바울에 관한 새관점’ 학파는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바울의 칭의론을 바울시대의 정황이 아닌 16세기 시각으로 이해했기에 오류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필자에게 중요한 점은 종교개혁자들 또한 칭의교리에서 교회나 사제 같은 중간 매개자없이 각 개인은 오직 자신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사실이다. 이로 인해 개신교회가 라틴문화에 둘러쌓여 있던 중세 카톨릭교회와 단절을 감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와 같이 집중된 권위를 가진 자만이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이제 누구나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고 교회의 전통 중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누구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은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라는 ‘만인제사장론’으로부터 유추된 주장이다. 앨리스터 맥그래스의 주장에 의하면 이것은 교회안에 신앙의 민주화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며<sup>13</sup>, 이후 개신교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양상의 운동으로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개신교는 끊임없이 복음의 본질을 숙고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변형시켜왔다. 맥그래스는 이런 개신교의 성장모델을 생물학의 돌연변이에 비유하며 놀라운 생존능력과 적응가능성을 보여왔다고 말한다<sup>14</sup>.

## 5. 칭의론과 자신학적 함의

기독교의 역사는 끊임없이 국경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문화와 환경속으로 적응해 간 적응과 번역의 역사이다. 신학에 있어서도 신경(creed)으로 표현되는 변할 수 없는 보편적인 교리도 있었지만 종교개혁 초기에 일어났던 ‘아디아포라’ 논쟁이나 재세례파 논쟁 등 권위의 부재로 인해 발생했던 심각한 혼란도 있었다<sup>15</sup>.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루터의 존재론적 자각에 의해 정리되고 재발견된 칭의론은 복음의 초문화성과 번역가능성이라는 본질적 성격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기능을 해왔다. 그 동안의 개신교 선교운동은 서구문화의 껍질과 옷에 쌓인 복음을 전세계에 이식하는 성격의 선교운동이었다. 그러나 이제 서구사회가 급속하게 세속화되어 가면서 더 이상 기독교 문명(Christendom)이라 부를 수 없게 되면서, 이제 기독교의 탈 서구화가 세계교회(Global christianity)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즉 그 동안 기독교가 서구문화에 너무 강하게 결속되어 복음과 서구문화를 구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서구사회가 급속하게 세속화하면서 이 둘을 구분하고 다수 세계(Majority world)의 지역교회들이 자신학화 작업을 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

<sup>13</sup> Ibid, 92

<sup>14</sup> Ibid, 739

<sup>15</sup> Ibid, 제 4장을 참조하라. 개신교 초기 성경해석의 혼란상은 이후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자체적으로 합의한 신앙고백서들을 발행함으로 해결되어 가지만 근본적으로 개신교안에 심겨진 분열의 DNA는 막지 못한다.



한국교회 역시 자신학화의 역량을 키워야 하는 이유는 작금의 한국사회와 현실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의 성경적 해답을 더 이상 서구신학이 제공해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문제와 문화를 성경적 진리에 비추어 구속하는 작업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자의 견해로는 이런 한국적 자신학 역량을 기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보편적 용어로 복음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했던 이신칭의 교리에 대한 재검토일 것이다.

## 6. 마무리: 이슬람선교지에서의 경험

마지막으로 필자가 이신칭의 교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나누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필자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국 이슬람 미전도종족속에 들어가 선교사로 활동했다. 이때 필자는 이슬람 내부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sup>16</sup> 이들의 존재는 교회론적으로 많은 논쟁과 찬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은 무슬림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에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sup>17</sup> 그러나 선교지 현장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해 본 필자로서는 이들의 믿음을 그렇게 쉽게 단정지을 수 없었다. 이들 안에는 분명 전통적인 기독교인의 사고로 쉽게 규정지을 수 없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들어가는 문은 넓게 열려있지만 나오는 문은 막혀있는 종교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개종자 모델의 선교로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다. 이럴 때 필자는 앤드류 월스의 책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바울이 택한 선교의 방법이 회심자 모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은 사도바울의 이신칭의 교리가 필자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어떤 이해의 빛을 던져주지 않을까 하

---

<sup>16</sup> 데이비드 개리슨은 전 세계 9개 이슬람 권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심과 성령의 역사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담은 책 『이슬람 세계에 부는 바람』 (앗쌀람, 이천 역, 2022)을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필자가 사역한 지역에서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현상임을 밝혀주었다.

<sup>17</sup> 존 트라비스는 이슬람세계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문화나 종교를 기준으로 5종류의 C스펙트럼으로 분류했고, 그중 무슬림 정체성을 유지한 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C5로 분류했다. 그리고 혹자는 이들 모임을 내부자운동으로 호칭했다. 그러나 필자는 외부자들에 의한 이러한 분류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공동체는 문화나 종교적 표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안에 있는 공동체인지 밖에 있는 공동체인지로만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갈3:28)

는 희망을 갖게 해 주었다. 이에 필자는 바울의 칭의론과 씨름하며 이슬람세계가운데 일어나는 회심자들을 이해하기위해 꽤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다.

이제 필자는 9년전 교회의 부름을 받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본부사역을 하고 있기에 선교지에 서의 이런 신학적 반추작업은 멈추어 있는 상태다. 그 이후 이러한 그룹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짧은 고민의 시간을 통해 확인한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셨을지도 모르는 운동에 대해 너무 쉽게 판단하는 자의 위치에 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슬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운동들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며 자신들의 신학을 계발할 역량을 키우고, 기독교 다른 그룹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원형테이블로 나아와 보편신학에 기여하는 정도까지 성장하는 것이다. 그때까지 외부자인 다른 문화권의 공동체들은 그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거부하기보다 오히려 응원하고 기다리고 환대하며 대화의 자리로 초대해야 할 것이다.